

# 남원시, 열린대화 성황

### 최경식 시장 “강소도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등 시정 계획 공유

남원시가 ‘즐거움 변화, 행복한 시민! 시민의 행복이 남원의 내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열린대화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대화는 최경식 시장의 2024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시민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화에서는 지난해 시정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올해 계획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시 발전에 대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확신을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읍면동의 주요 사업과 추진계획을 읍면동장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 시장은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제94회 춘향제 개최, 생활

인구 10만명 유치 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계획을 소개하며, 그 어느 때보다 남원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열린대화’에서는 시민들의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지엽적인 사항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시정 방향에 집중, 대표적으로 산내면 A씨는 인구 소멸의 위기속에서 관광객유치와 생활인구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지 시민들의 행복도를 고려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남원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최 시장은 “남원시는 인구소멸 고위험 단계에 있어 머물고 싶은 남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관광 등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이 기반이 되는 사업들에 대한 투자와 추진도 계속해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열린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은 국소장과 해당 부서장 및 읍면동장을 향해 “건의 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와 건의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시민들과 1천5백여 공직자와 함께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강소도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즐거움 변화, 행복한 시민! 시민의 행복이 남원의 내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열린대화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 순창 고추장불고기 간편식 본격 판매 돌입

### 순창군-LG헬로비전 공동 개발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LG헬로비전(대표이사 송규영)과 함께 개발한 간편식 ‘순창고추장불고기’를 정식 출시해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달 ㈜LG헬로비전과 순창 특화 음식 개발과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양측은 협약을 통해 순창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 TV 및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로 개척과 마케팅, 순창 농특산물 소비촉진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에 판매를 시작한 HMR 순창고추장불고기는 민선 8기 순창 음식관광산업육성기 위해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유명 셰프인 이원일씨와 함께 개발해 4개 식당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가정에서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새롭게 리뉴얼한 제품이다.



이에 군은 제품화를 위해 순창군 공유주방인 발효소스생산동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고추장을 소스와 하였으며, 이를 LG헬로비전이 양념육으로 제품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한 ㈜LG헬로비전

이커머스 팀은 “LG 헬로비전은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해 온 사업자로서 지역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커머스를 하고자 한다”며 “올해 목표한 매출액을 달성하여 순창군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또한 “이번 순창고추장불고기 간편 HMR 제품은 누구나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다”며 “앞으로도 순창의 맛있는 음식들을 전 국민이 맛볼 수 있도록 음식관광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먹거리 넘쳐나는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 고추장불고기는 LG헬로비전 제철장터 온라인 쇼핑몰(seasonmarket.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2팩에서 8팩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판매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순창군, 3000만원으로 50%로 확대 전북자치도 내 최고액

순창군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5억원으로 사업장의 시설 개보수, 노후 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만족도가 높은 군민 체감사업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로 확대했으며, 이는 전북도 내에서는 최고액이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 50%까지, 개소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주요 기계 및 장비, 그릇, 포장재 등은 지원액이 제한된다.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비는 최대 2천만원, 물품 교체비는 최대 500만원(그릇교체는 500만원 중 250만원까지),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비는 최대 500만원,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확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군청 경제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접수 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사실조사,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사업비 2,2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용역을 실시 후 적정 사업비를 산출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남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대형 마트와 온라인 구매 등 소비자의 구매 형태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시민들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13일간 추진되며, 남원시 공무원과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관내 전통시장에서 남원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과 식료품 등을 구매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2월 현수막 정비 추진

남원시는 2월 한달 정당 등의 현수막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배제 내용으로 2022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며, 설치 숫자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시행 이후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 폐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및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읍·면·동별 2개 이하로 제한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소방설비나 횡단보도 근처에는 설치가 금지·제한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이어야 하고, 정당의 명칭, 정당과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표시한 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임산부 안심+119 구급서비스 연중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박현)는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들의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안심+119구급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산부의 경우 갑작스러운 조기진통이나 양막파수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 등록된 번호로 119에 전화하면 즉각적으로 임산부임을 알고 평소 다니던 병원이나 간단한 지병 등도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임신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 임산부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을 위해선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전화번호와 주소)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된다. 온라인 방식이 어려우면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대리료 등록할 수 있다.

단 등록된 전화기로 신고해야 119상황실에서 등록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병력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신청접수

임실군이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과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단체(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요건은 임산물을 재배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만 신청 가능하고,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관내 임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종자·묘목대, 관수·관정,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생산장비 등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저장·가공·유통장비 등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생산 적합성·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이다. /임실=진홍경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적이 많은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작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